

다문화정책 워크숍

- 일 시 : 2019. 7. 22. (월) 14:00
- 장 소 : 충남테크노파크 대회의실

다문화정책 워크숍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학생의 지역 적응 지원방안-

① 목적

- 초기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지원은 빠른 정착에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다문화가정 가구특성의 변화에 따라 장기정착 문제와 자녀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충청남도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초점을 둔 워크숍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함
- 학계, 관련 전문가, 교육당국자,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관련된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② 개요

- 일시 : 2019. 7. 22. (월) 14:00 ~ 16:30
- 장소 : 충남테크노파크 대회의실
- 주최 : 충남연구원

3 진행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13:30 ~ 14:00	30'	[참석자 등록]	
14:00 ~ 14: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개회사 : 윤 황 원장(충남연구원)	○ 전체사회 : 고승희 실장 (충남연구원)
14:05 ~ 14:10	5'	[축사] ○ 축사 : 한영신 의원(충청남도의회)	
14:10 ~ 15:10	60'	[발제 및 종합토론] 좌 장 : 성태규 박사(충남연구원) 발제 1 : 남부현 교수(선문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와 문제점, 교육적 과제 발제 2 : 이경숙 교수 (건양대학교 교육혁신원) ▶ 다문화가정 자녀 발달과 교육지원방향 모색 발제 3 : 이병례 장학관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 충남 다문화 교육 현황 및 정책	
15:10 ~ 15:20	10'	[휴식]	
15:20 ~ 16:30	70'	[다문화가정 사례발표 및 종합토론] 사례발표 1: 아리오나(다문화 가정 학부형) 사례발표 2: 문데미(다문화 가정 학부형) 토론 1: 한영신 의원 (충청남도의회) 토론 2: 윤여송 관장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토론 3: 정낙도 팀장 (충청남도청 가족다문화팀) 토론 4: 조영종 교장 (천안오성고등학교) 토론 5: 김진영 박사 (충남연구원)	
16:30 ~		[폐회]	



목 차



I.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와 문제점, 교육적 과제 1

남부현 교수(선문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II. 다문화가정 자녀 발달과 교육지원방향 모색 13

이경숙 교수(건양대학교 교육혁신원)

III. 충남다문화교육 현황과 정책 23

이병례 장학관(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국제교육팀)

IV. 사례발표 및 종합토론 35

축 사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충남도의원 한영신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자녀에 관심을 가지고 워크숍을 제안해 주신 충남연구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다문화 가족 자녀 적응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특히 다문화 학부모 아리오나 씨와 문데미 씨의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과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주민은 2017년 11월 기준 186만을 돌파하여 2021년에는 3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들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전국 다문화 학생 수는 12만 2천명, 충남 다문화 학생 수는 8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입국 자녀수는 17년 기준 20,073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중도입국자의 연령은 18세 이상이 많아 국내에서 성장한 다문화가족 자녀보다 한국어 구사 능력, 진학과 학력 인정, 정체성, 진로 등 적응에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다문화학생 10만 여명 가운데 1,278명이 학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은 개인요인 뿐 아니라 다른 또래들과의 관계, 학교생활, 가족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음을 고려하여 적응하는 방법을 지원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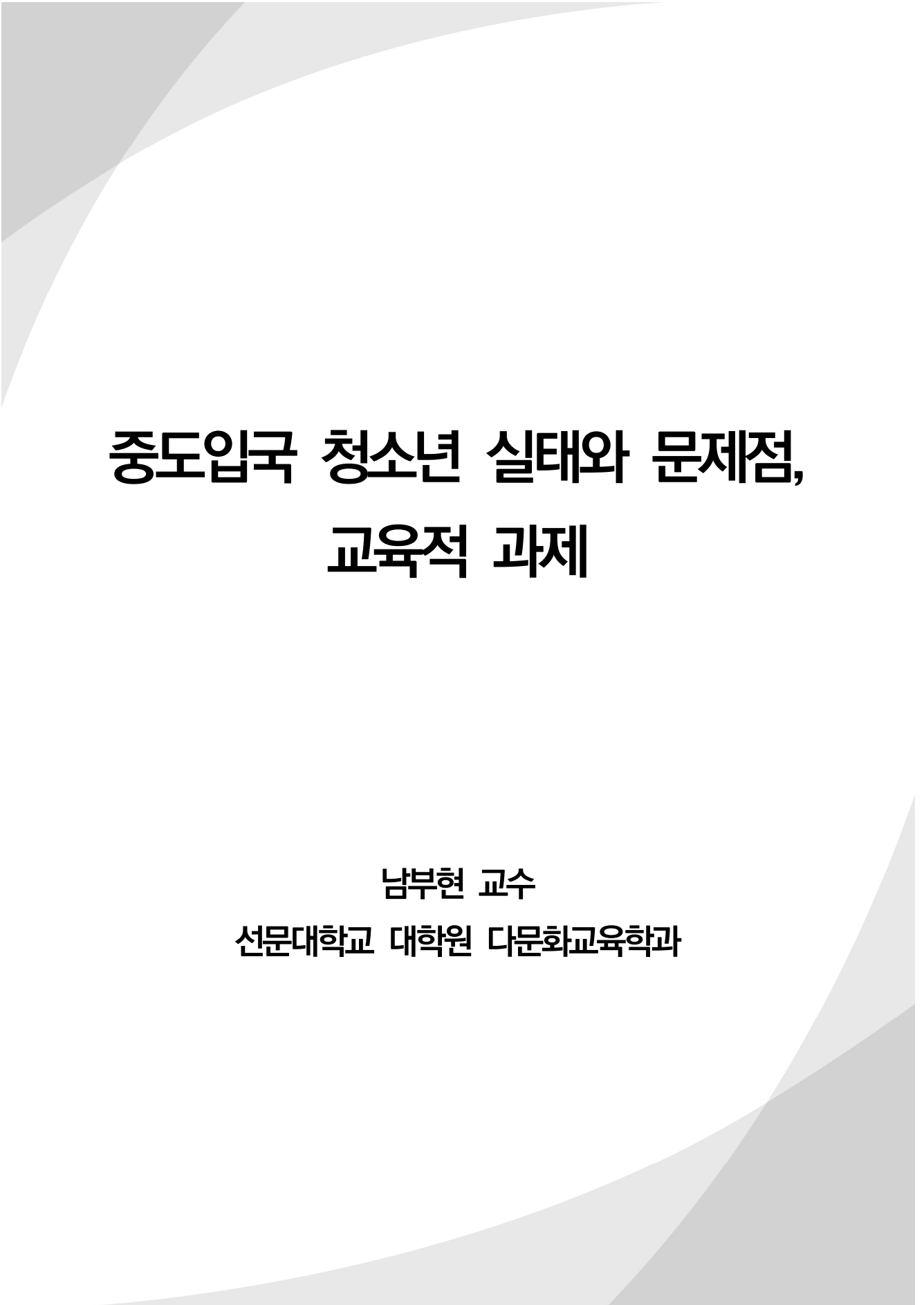
다문화가족 자녀가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에 처해도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교류와 지지가 충분하다면 잘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다문화학생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여러 나라 문화가 이질감 없이 교류하고, 문화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평화적 공존의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9. 07. 22

충남도의원 한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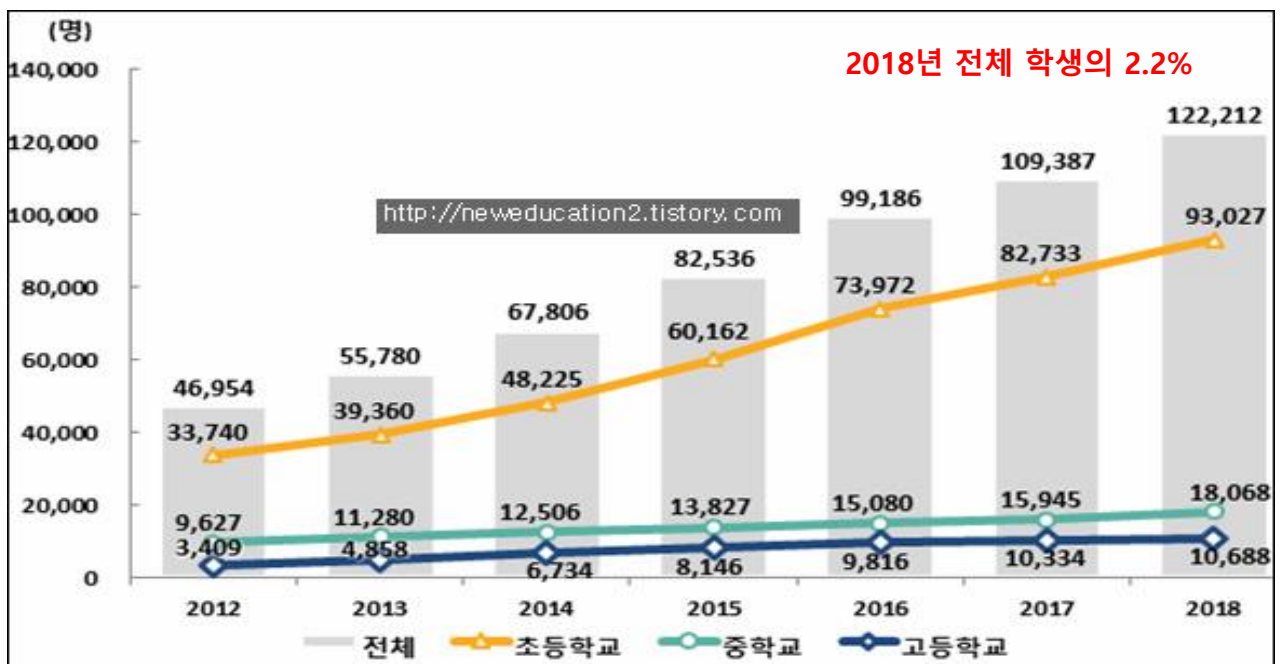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와 문제점, 교육적 과제

남부현 교수
선문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와 문제점, 교육적 과제

남 부 현

선문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교수
글로벌다문화교육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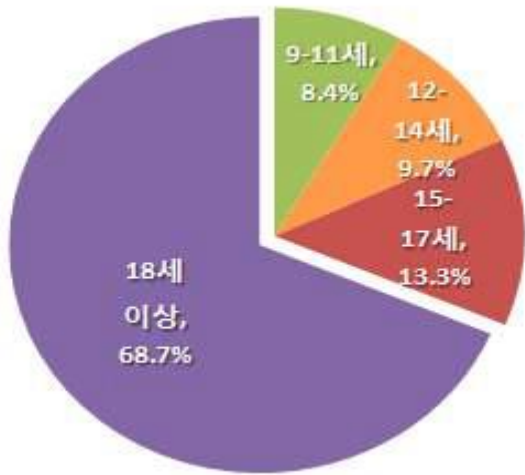
2018년 다문화 학생,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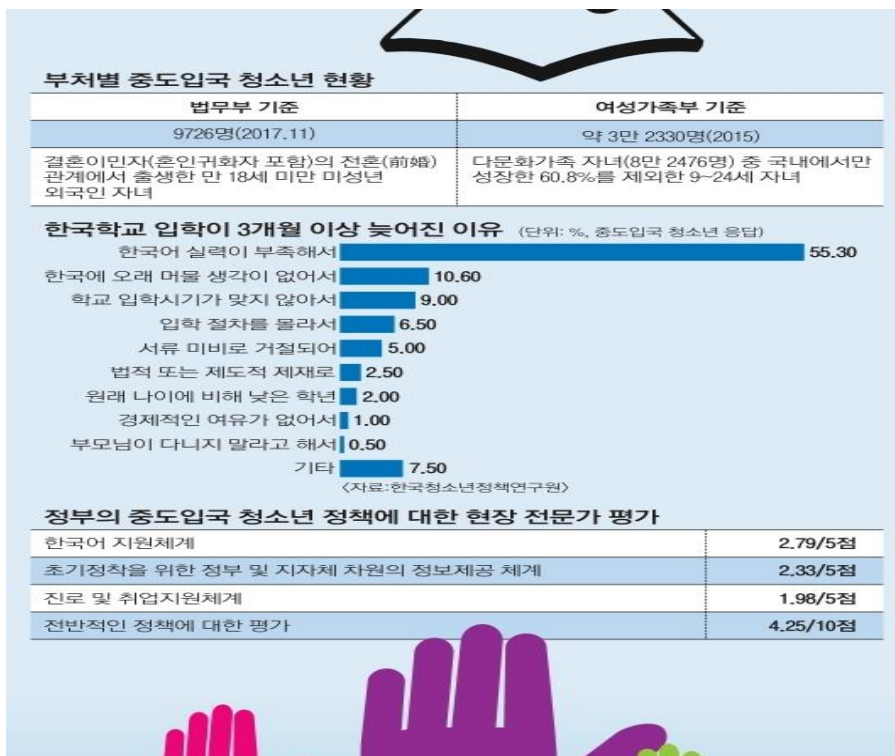
중도입국청소년 개념 및 규모

부처	통계 항목	주요 개념	규모	출처
여가부	외국성장자녀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오래 성장한 자녀 (만9세 이상~24세 이하)	12,782명	'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교육부	중도입국학생	중도입국하여 초·중·고등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7,792명	'17년 교육통계
법무부	중도입국자녀	한국으로 결혼이민 온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해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및 귀화한 미성년자녀 (만18세 이하)	8,637명	'17.4월년 법무부 제공 자료 (비자 종류로 집계)

- 중도입국·외국인가정 다문화 학생 수 증가 : ('12) 6,914명 → ('17) 20,073명
- 중국·한국계 중국(33.6%), 베트남(26.5%)
- 최근 공단 인근을 중심으로 이주민 밀집지역이 형성



- 국내에서 성장한 자녀: 유. 초등기 (만11세이하) 비중이 높음.
- 중도입국청소년: 만 18세 이상 비율이 높음(69%)
- **가장 큰 애로점**: 한국어, 한국 내 진학 및 학력 인정, 진로 및 취업 문제에 어려움
- (여가부, 2018, 03)



만 18세 미만
중도입국 청소년.
법무부 기준으로는
1만명이 안 되지만,
현장에서는 3만명이
넘는다고 추산

서울신문, 2018-01-08 23:07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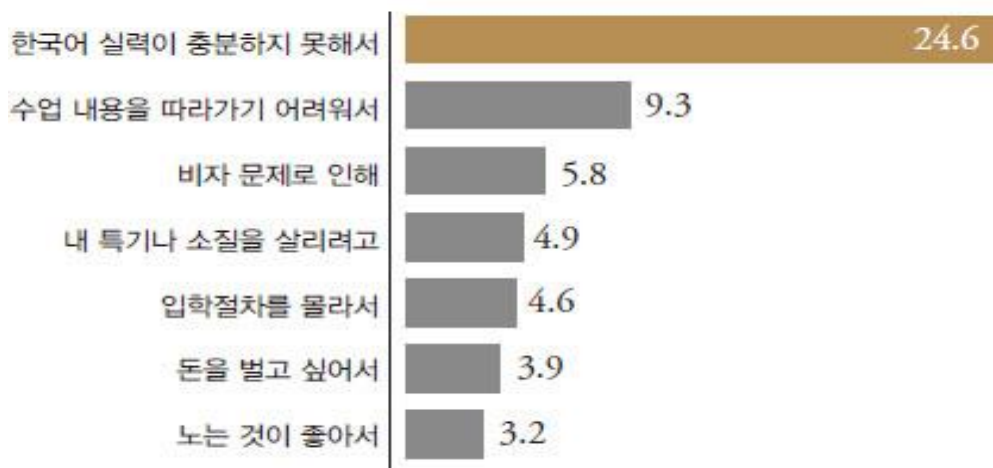
학교를 그만두는 다문화 학생이 매년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다문화 학생 10만9387명 중 1278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사춘기에 한국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적응하기가 어렵다. "매일 학교에서 0점 받고 꼴등만 하는데 선생님도 관심을 안 주니 학교 다닐 맛이 안 난다고 말하는 학생이 많다"고 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편견 섞인 시선을 견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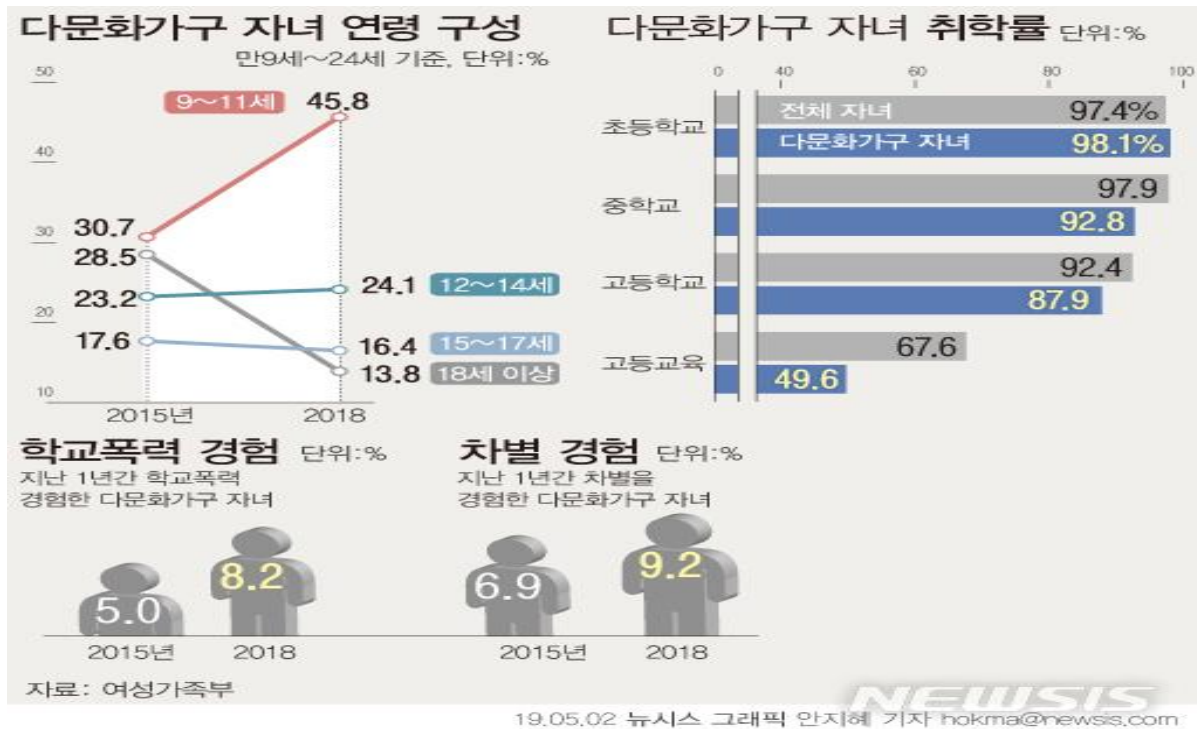
(국민일보, 2019. 02. 2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3866>

중도입국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 단위: %, 중복응답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중도입국 청소년 주요 특징 (남부현 & 김경준, 2018)

- **청소년기 국제이주**: 주로 십대 청소년들
- **이중정체성**: 한민족으로 정체성은 미약, 스스로 중국인으로 인식, 중국을 자신의 모국으로 생각
- **재사회화**: 새로운 사회와 가정 (부/모의 관심과 애정의 정도에 따라 적응이 달라짐)
- 교사의 지지,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으면 **진로 정체감, 자아 존중감** 등이 높아짐.
- **정서적 연대**: 같은 문화권 동료들과 어울리며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감소시킴.
- **모국생활 그리움**: 모국 외조모, 친척, 친구들 보고 싶음. 모국 귀환 원함.
- **불확실한 삶**: 한국어 능력 부족과 신분상 문제 등

중도입국청소년 언어와 진로 문제

- 학교 내 십대 중도입국 청소년 편입학 증가
- 한국어 부족: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높임(생활, 학업 적응에 어려움)
- 한국어 학습기간이 길어지면서 학습동기가 낮아진다.
- **언어소통, 신분문제**: 진로준비 어려움과 진로장벽 높게 인식
- 자신의 **진로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음
- 연령이 높을수록 **탈학교 비율이 높음**.
- **교사와 학생들의 부정적인 태도**: 학교 이탈을 높이는 원인이 됨.
- 십대 후반인 이들은 학교를 다녀야 하는 **학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나 취업 원함**.
- **불확실한 미래**: 미래 진로나 적성과는 무관한 일을 함.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직은 남성 1.6%, 여성 5.0%에 그쳤고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남자 중도입국 청소년이 41.6%나 됐다. 대다수 여자 청소년은 판매직(26.7%), 장치·기계조작·조립(23.8%), 단순노무직(23.6%)에 종사하고 있었다(주간조선, 2019.06.10).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61100013&ctcd=C02>

중도입국청소년 정서적 심리적 문제

- **대인관계 어려움**: 이방인으로 느끼며 가정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
- 한국인 아버지인 양부와 **소통과 애착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
- 자기에 대한 **이해부족, 자신감 부족** 등
- **고립된 생활**: 집에서 TV 시청, 컴퓨터 게임, 타인과 소통 없음.
- 본국과 한국의 문화적 가치관, 문화 차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증대, 문화 충돌 발생**

조선족 부모의 중도입국자녀 초기 문화적응 과정 경험과 인식 결과 (남부현 & 김경준, 2018)

범주	대주제	소주제
정체성	양국 경계 속 민족정체성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족, 어느 나라 사람? 국가적 경계 넘는 한민족 정체성 아직은 중국인으로
	가변적 국가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에 따라 국가 정체성 변동 중국인 관점에서 역사 이해
사회적 차별과 편견	출신국에 따른 차별과 편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사람이기에 겪는 차별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우리 아이도 따돌림 받을까 걱정
문화 차이	문화충돌과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생활예절과 문화 수용 어려움 모에게 불만 표출
	적응 스트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정서적 불안 상태 친구없고 게임과 핸드폰 집착 모국 친구끼리 어울림

범주	대주제	소주제
언어와 소통	소통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 통역자인 엄마의 난처함 한국어 사용 강요하는 새 아빠
	문제해결의 열쇠, 한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우선 과제는 한국어 학습 진로도 미래도 다 한국어가 좌우
학업과 진로	한국학교 진입과 진로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잡한 학교 편입학 과정 국가 간 학교교육의 차이 자녀 진로에 대한 막연한 기대
	교육정책과 서비스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 요구 중도입국 자녀/학생 관련 정책 제안

한국어 교사의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 지도경험 결과 (남부현 & 김지나, 2017)

범주	대주제	소주제
중도입국청소년 특징과 이슈	사춘기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정서적 불안 공부보다 친구 찾아 놀러 옴 집에 가면 게임만
	막연한 진학과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무계획인 아이들 비자문제로 학업포기 나름 학업 대신 취업으로
	동료관계 힘의 논리 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 국적 학생 중심 자국우선주의와 분리 국가와 성별에 따른 편견
한국어 교육 지도	관리와 통제 힘든 한국어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대상(연령, 출신국가, 한국어 수준 등) 수업 중 돌출 행동에 무방비 수업 중 게임이나 잠자는 아이들과 씨름
	한국어 교수 방법 고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복 학습과 학습자의 모국어 활용 교사 간 소통 필요
	다양한 교사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념과 인내심 우선 심리·정서 지원 정보 및 자료제공

범주	대주제	소주제
이주민 학부모와 관계	소통도 자녀공부도 무관심한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맡겨놓고 끝나는 부모 자녀와 소통과 돌봄 미흡
	자녀교육 관점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이 우선, 자녀교육은 무관심 부모의 교육적 관점과 노력의 차이 물질적 보상으로 위로
교육적 제안	학생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교육은 의무화/강제성 필요 학부모 참여와 책임 부여 학생들 위한 멘토링과 자원봉사자 충원 상담지원은 충분한 교감형성 후
	교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인정 기대 과중한 업무 축소

범주	대주제	소주제
특별학급 교사의 학생 지도 경험 (남부현 & 장숙경, 2015)	학생 이해	- 낯선 다문화 학생 - 한국어 미숙하고 정서불안 함 - 문화적응 과정에 인정과 기다림
	학부모와의 만남	- 언어적·문화적 소통의 어려움 - 자녀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차이
	가정환경	- 자녀-부모 간 의사소통 부재와 단절 - 정 부칠 데 없는 가정
	교과지도	- 학생 수 만큼 다양한 교육과정 - 원적학급과 교육시간 충돌 - 분리교육의 부작용
	한국어교육	- 난감한 한국어 수업 - 보완 필요한 한국어교재

2019-07-16

17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과 지도 과제

- 학교 내 문화와 환경 변화: **다문화교육적 가치와 목표 실현**
- 중도입국학생 모국 교과 연계한 교과과정 개발
- 주말과 방학 중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
- 개인의 잠재력 발굴: 언어, 문화, 재능 등
- 교사 재교육 및 예비교사 교육: 다문화교육 연수로 전문성 확보
- 주말 또는 저녁 다문화 학부모 교육: 교육의 공급자 & 수혜자로 역할 부여
- 다문화교육 (전문)강사 양성: 모든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
- 중도입국학생 전문 진로교육 및 상담
- 학교 내 다문화 공동체 의식 교육: 불평등, 낙인, 따돌림, 경쟁 문화 해결
- 지역사회 변화: 학교-공공기관-가정 유기적인 생태계로서 연대와 협력 증대

2019-07-16

18



다문화가정 자녀 발달과 교육지원방향 모색

이경숙 교수
건양대학교 교육혁신원

다문화가정 자녀 발달과 교육지원방향 모색

이경숙(건양대학교)
klee@konyang.ac.kr

1. 다문화 영재교육 현황

년도	㉠ 전체학생수	㉡ 영재교육대상자수 (비율:㉡/㉠)	㉢ 다문화학생수 (비율:㉢/㉠)	㉣ 다문화영재교육대상자수 (비율:㉣/㉡)
2013	6,529,196	121,421(1.85%)	55,780(0.85%)	178(0.15%)
2014	6,333,617	117,949(1.86%)	67,806(1.07%)	136(0.11%)
2015	6,088,827	110,053(1.81%)	82,536(1.36%)	206(0.19%)
2016	5,882,790	108,253(1.84%)	99,186(1.68%)	234(0.21%)
2017	5,725,260	106,138(1.9%)	109,387(1.9%)	322(0.30%)
2018	5,584,249	109,266(1.91%)	122,212(2.2%)	448(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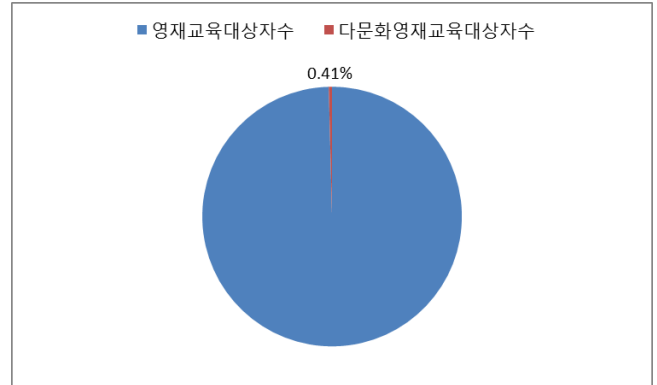
1. 다문화 영재교육 현황

2018년 전체학생대비 다문화학생비율



2018년 다문화학생 122,212명(2.1%)
(한국교육개발원,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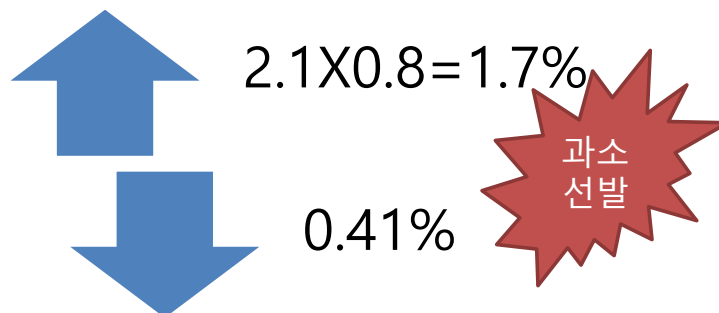
2018년 영재교육대상자대비 다문화영재학생비율



2018 GED 다문화영재학생 448명(0.41%)
(한국교육개발원, 2019)

Ford(2017)의 영재교육 형평비율지수 (EI, Equal Index)

전체인구에서 특정인종(계층) 비율 x 0.8



1. 다문화 영재교육 현황

- 과소선발 이유

- 다문화 영재 선발 방법과 교육과정의 부적절성
- 다문화 아동에 대한 낮은 기대와 인식
- 다문화 가정 부모의 교육 접근성 제한
- 다문화 가정 부모의 사회문화적 자본 자녀 미전수

2.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인식

1) 다문화 가정 학부모와 자녀

- 강대영과 최희준(2015)연구

- 1562명 다문화 가정 학부모대상 '자녀에게 기대하는 최종학력' 설
: 대졸- 60.8%, 대학원박사-18.4%로 높게 기대
- 학습 지도 및 장학금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알지 못함
- 다문화 학생 대상 '자신에 대한 가정의 기대'(4점 만점의 1.72)

2) 부모 인식 비교

- 김대현과 왕경순(2007)연구
- 충남 C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학부모교육 참여 35쌍 설문
(이경숙·이신동, 2018)

질문	응답		
	다문화	비다문화	
자신의 자녀를 영재로 생각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30% 잘 모르겠다 70%	그렇다 48%	
n=35명			
문항	전혀 알지 못한다	들어 본 적이 있다	잘 알고 있다
한국에서 운영중인 영재프로그램에 대해	10명	23명	2명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선발 방법에 대해	23명	9명	2명
글로벌 브릿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27명	6명	2명
영재 선발 시 다문화자녀의 특별 전형이 있는 것에 대해	29명	4명	2명

3) 다문화 부모의 역할에 대한 조사

- 부모역할에 대해 5점 만점

내용	평점
놀이하기	3.85
음식 해주기	3.93
문화 공간 가기	2.70
이야기 하기	3.86
책 읽어주기*공부 봐 주기	3.49

- 자녀 양육 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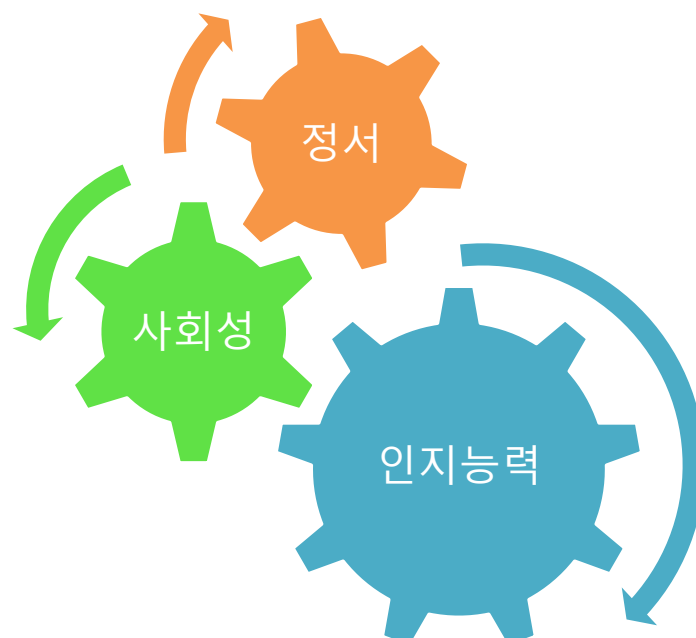
양육 반응	평점
양육 혼란	3.27
짜증	2.52
장래 걱정	3.53

- 부모가 주변에서 받는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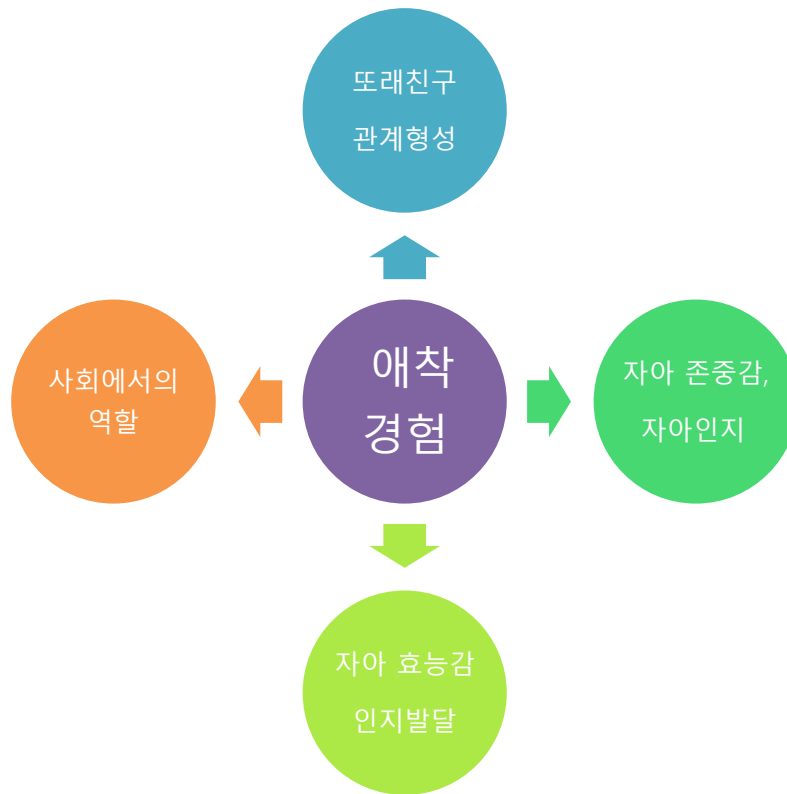
4) 13세 이상 다문화 가정 학생의 고민(통계청, 2012)

내용	응답비율	내용	응답비율
공부	44.7	신체적, 정신적 건강	11.2
직업	30.5	가정환경	7.4
고민 없다	25.5	이성교제	7
친구	19.9	인터넷 중독	4.8
외모	19.8	술 담배	2
용돈부족	18.4	학교 폭력	0.7
경제적 어려움	16.1	기타	3

3. 전인적 발달 지원 필요



1) 애착



2) 자아 효능감



※ 부정적 사고방식

개인의 외모/성격, 가정, 친구관계, 학교, 일상생활, 진로 등과 관련된 자기비하, 당위적 사고, 과일반화, 이분법적 사고, 고정관념 등으로, 현실을 왜곡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신뢰하는 사고체계를 의미함.

※ 자기효능감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특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것이라는 개인의 긍정적인 신념(positive belief)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적 맥락이 상이한 환경에서도 주어진 일들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확신을 포함함.

※ 자아정체성

개인이 자신의 생애역할, 삶의 목표,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존재의 본질을 명확히 깨닫는 것으로, 개인적·심리적 정체성의 의미뿐만 아니라 인종과 민족적 정체성 등의 의미도 함께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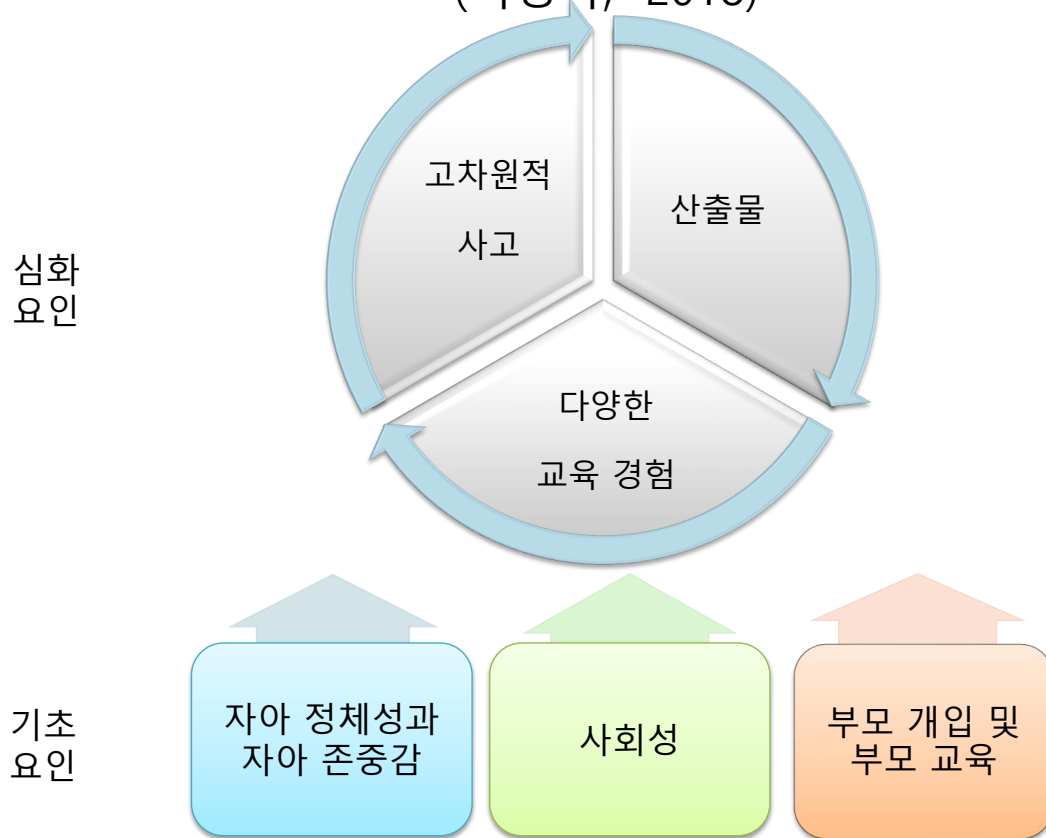
4. 자아인지의 변화

-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신의 환경에 대한 대처 태도가 달라짐
- 성공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
- 긍정적 사고를 통한 자신감과 흥미와 재능을 가진 영역에 대한 내적 동기와 과제 집착력을 가지고 긍정적 자아 정체성 형성
- 의사소통능력

5. 구체적 지원 방안

- 다문화가정 아동과 부모에 대한 조기 중재 프로그램
 - 언어, 양육
-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인식 제고
 - 장점교육
 - 부모교육(교육정보, 자녀와의 의사소통,)
 - 교사연수(주류문화 관점탈피, 다문화관점획득, ex) 사범대학생: 다문화가정 실습, 타국가 실습 등
 - 편견제거 교육과정
-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역량 강화
 - 부모의 사회·문화적 자산 자녀 전수
 -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적극적 참여

다문화영재 역량강화 모형
 (Multicultural Gifted Empowerment Education(MGEE) Model)
 (이경숙, 2018)





충남다문화교육 현황과 정책

이병례 장학관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국제교육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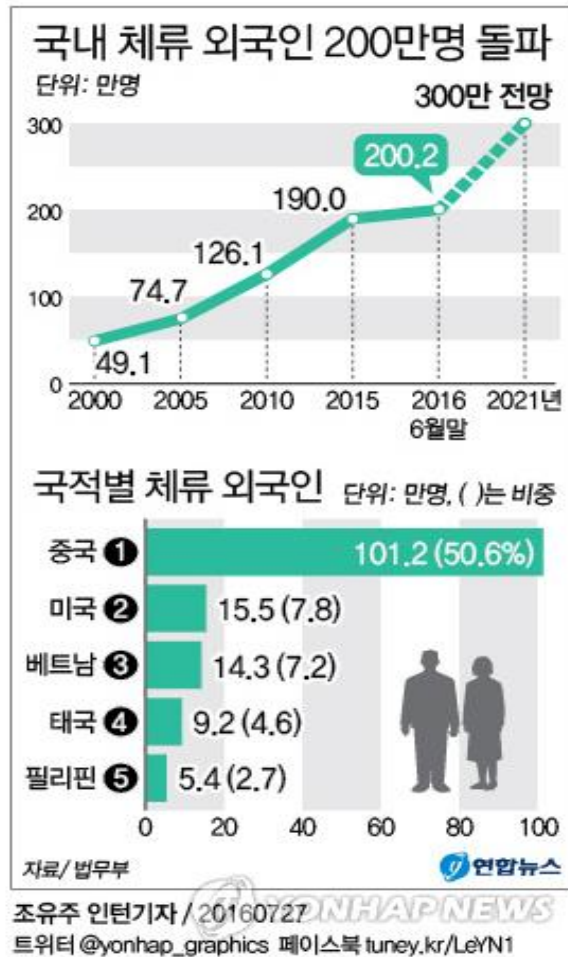
충남다문화교육 현황과 정책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국제교육팀
장학관 이 병 레

다문화교육 추진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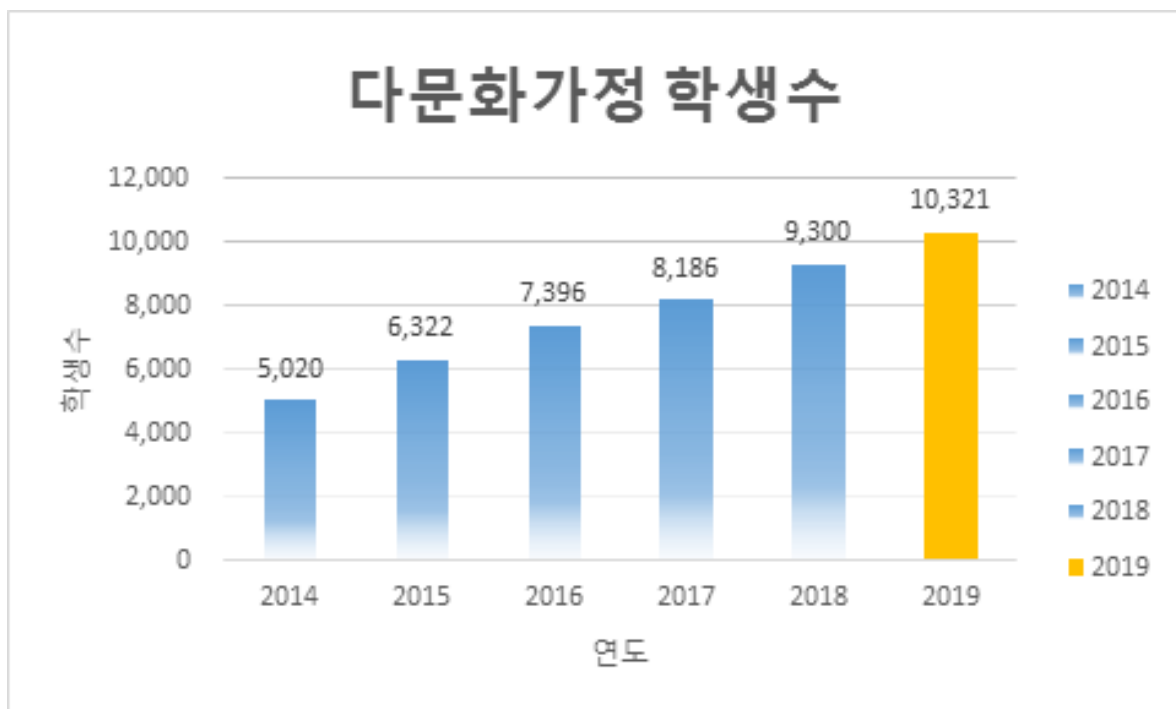
- 교육기본법 제4조 (2007.12.21.)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2017.12.12.), 제10조(2015.12.1.)
- 교육부 시범사업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2014.12.24.)
-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교원의 전문성 강화사업
추진계획(2017.12.20.)
- 교육부 교육 소외계층 지원사업 계획 (2017.11.8.)
- 교육부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업 추진계획 (2017.12.)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제3892호)
2019 충남 주요업무계획 (2018.12.)
다우리 다문화교육 추진 계획(201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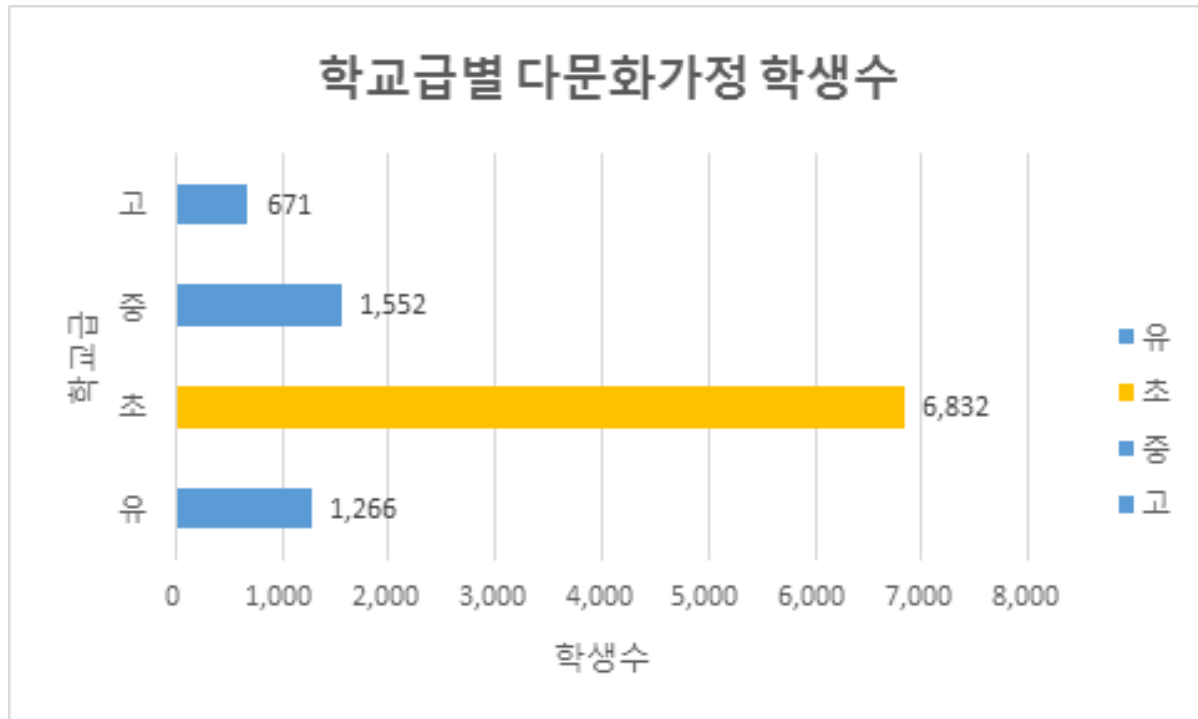


2016. 7. 27. 연합뉴스
200만 돌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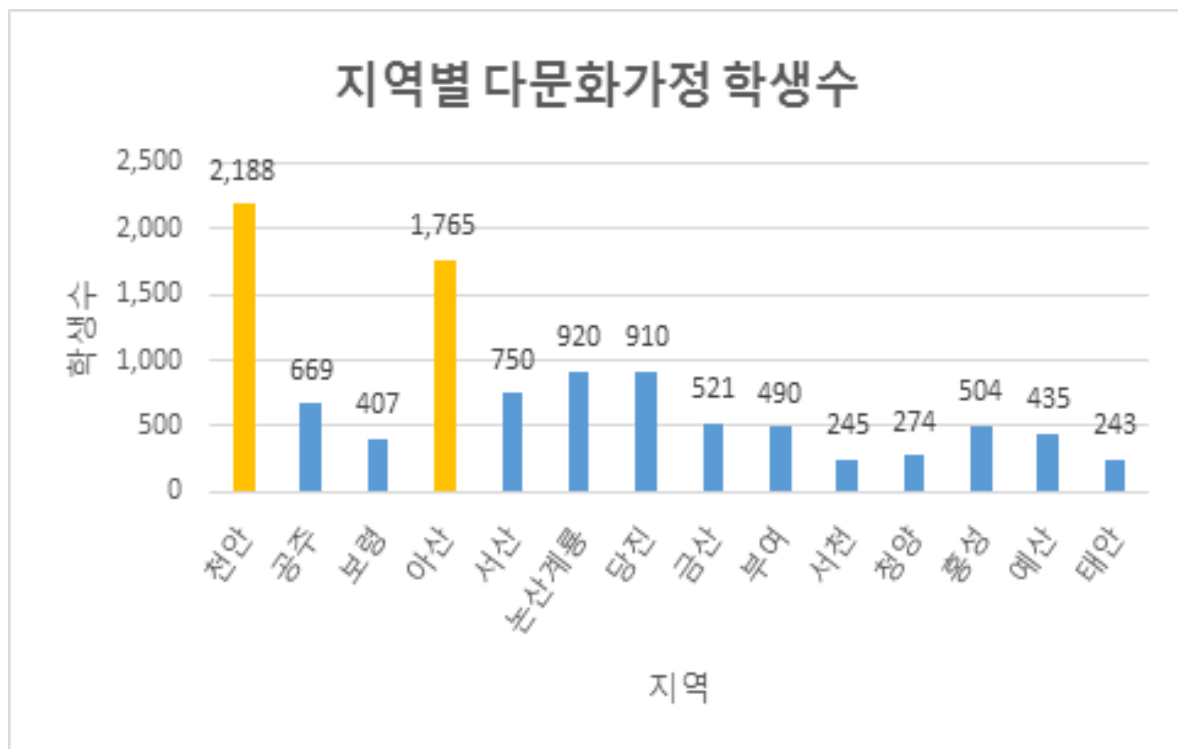
2021년
300만명
예상!



2019.4.1일자 충남교육청 자체조사



2019.4.1일자 충남교육청 자체조사



2019.4.1일자 충남교육청 자체조사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어려운 점



- 언어능력 부족
- 집단 따돌림
- 경제적 문제
- 정체성 혼란 등

충남교육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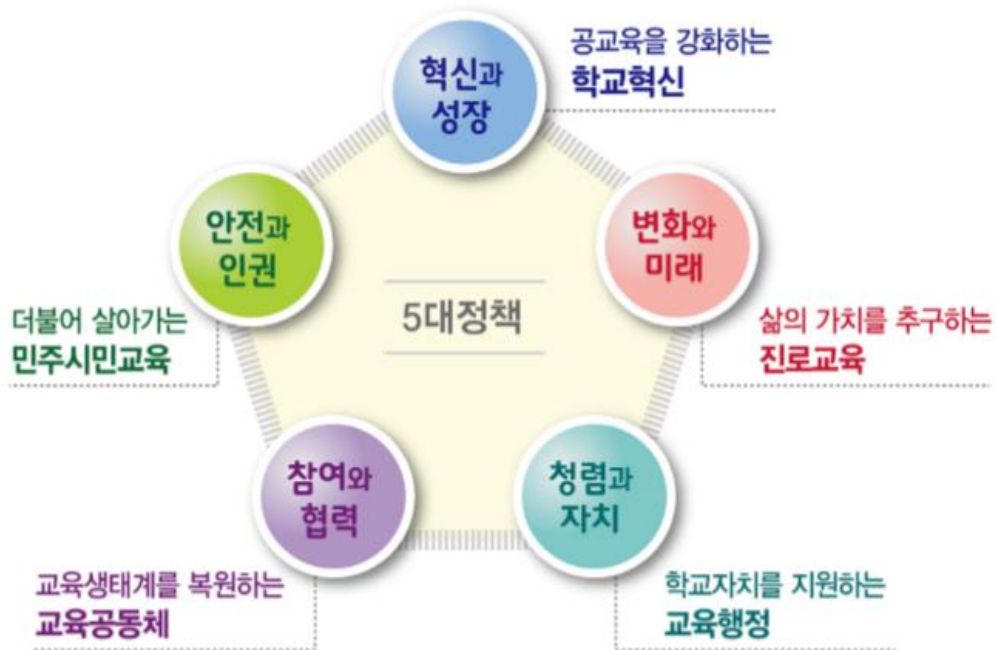
교육비전



교육지표

미래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충남교육 주요정책



주요추진과제

환경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 충청남도교육청다문화교육센터 운영
- ▶ 다우리 교육지원단 운영
- ▶ 중도입국학생 입학·적응 지원
- ▶ 다문화 친화적 도서관 운영
- ▶ 다문화교육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 ▶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설립 추진

교육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내실화
- ▶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교육
- ▶ 세계문화체험의 달 운영
- ▶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 예비학교, 한국어학급, 원격화상강의
- ▶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진로

꿈·끼 계발 맞춤형 교육

- ▶ 다우리 학생동아리 운영
- ▶ 이중언어교육 강화
- ▶ 다문화 꿈길 성장캠프 운영
- ▶ 글로벌 문화체험 「공감」 국제교류
- ▶ 다문화 멘토링 사업 운영
- ▶ 다문화가정 학생 전문상담 프로그램

공감

교육공동체 참여 다문화교육 활성화

- ▶ 교원 연수 운영
- ▶ 다문화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 ▶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
- ▶ 다문화교육 공동캠페인과 홍보
- ▶ 유관기관 연계 '차별 없는 교육' 확산



1. 다문화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 충남교육청다문화교육센터 운영
- 다문화 친화적 도서관 운영(2018신규)
- 다우리교육지원단 운영
- 다문화교육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중도입국학생 입학적응 지원
- (가칭)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설립 추진(공약)



2.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예비학교 한국어학급, 원격화상강의
-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교육
- 세계문화 체험의 달
-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 기관 운영(2019신규)
- 수업보조인력 지원

3. 꿈, 끼 계발 맞춤형 교육

- 다우리 학생동아리
- 글로벌 문화체험 「공감」 국제교류(2019신규)
- 다문화가정 학생 대학생 멘토링 운영
- 이중언어교육 강화
 - 이중언어학교, 이주자참여외국어교육, 말하기대회
- 꿈길 성장캠프(글로벌브릿지 사업 전환)
- 다문화가정학생 전문상담 프로그램(2018신규)

4. 교육공동체 참여 다문화 교육

- 유관기관 연계 '차별 없는 교육 '
- 다문화교육 교사연구회, 학부모 활용 지원
- 다문화이해 교원연수
 - 전문가 양성과정: 집합, 기본/심화 각 30시간
 - 원격연수: 15시간, 최근 3년 내 100% 이수 목표
 - 관리자 워크숍
- 세이브더칠드런, 다음세대재단 연계 워크숍

다문화교육의 방향

■내용

학습부진, 정체성 확립, 적응교육

⇒ 다양성 이해교육, 타문화 이해 교육

■대상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구성원

⇒ 모든 학생과 일반 학부모 참여, 사회구성원

다문화교육의 방향

■정책, 프로그램

일방적 지원, 보호의 대상

⇒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요구 적극 반영

미래인재과 타 업무와의 융합적 접근

- 직업교육팀 사업 중 글로벌브릿지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 취업 교육 강화

다문화교육의 방향

■ 방법

일회적, 이벤트성 행사,

⇒ 교과교육과 체험활동 연계
생활교육 연계
모두를 위한 교육 내용

사례발표 및 종합토론

좌 장 성태규 박사(충남연구원)

사례발표 아리오나(다문화가정 학부형)
문데미(다문화가정 학부형)

토론자 한영신 의원 (충청남도의회)
윤여송 관장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정낙도 팀장 (충청남도청 가족다문화팀)
조영종 교장 (천안오성고등학교)
김진영 박사 (충남연구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

윤여승 관장(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I. 들어가는 글

최근 들어 한국사회는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의 교육 및 적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러한 다문화 청소년들이 균등한 기회를 받으며 올바른 다문화 청소년들로 성장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포용하며 노력에 청소년기관에서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제안과 진행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본론

현재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이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부, 여성가족부 통계자료에 의해서도 이주 배경 학생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나이도 점차 영·유아에 초등학교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제는 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의 포용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방과후 활동과 주말체험 활동으로도 확대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일반 청소년들에게 제시되는 체험 활동의 프로그램을 넘어 다문화 청소년이란 다양성을 가지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할이자 책무라 생각한다.

다문화청소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성과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범과 가치 등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 태도, 가치, 사회적 기술 등을 학습해나가야 할 것이다(유진이. 2016)

첫째는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문화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소통되고 교류하여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되는 주중 활동, 방과후 활동으로 언어, 문화, 예술, 스포츠활동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함으로 청소년기관과 지역사회에 소통의 기반을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는 다양성에 기초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문화청소년들의 부모의 출신국이나 사회계층 등에 따라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나 특징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일 유형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을 잘 고려한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장기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적은 인원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욕구 조사와 지도자에게도 대상자에 대한 학습과 충분한 이해도가 필요하다. 언어, 사회, 문화에 맞는 학습, 탐방, 체험, 방문 등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의해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청소년”을 모토로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자유공간을 설치확대 운영하도록 제시됐고 천안 또한 성환읍에 청소년자유공간 청다움 3호점을 개소를 통해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150명을 넘고 있고 그곳에 오는 청소년들에게 음료와 와이파이, 회의실, 스터디룸, 도서, 보드게임 등이 설치가 되어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모이고 있다. 이용자의 구성원들을 보니 다문화청소년들도 상당수 이용하고 있기에 라포형성 이후 욕구 조사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스포츠 및 신체활동을 통해 동아리 결성도 할 계획이다.

셋째는 프로그램을 설계시 부터 다문화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한다.

다문화청소년들의 포용적 프로그램이 대상이 청소년기로 성장해 옴으로써 요 몇 년 전부터 참여형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다. 지도자가 프로그램 설계하고 다문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설계 시부터 다문화청소년들이 참여할 것이다. 다문화청소년이야 말로 자신의 문제와 기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므로 역량 개발에 함께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진로직업체험활동, 과학정보활동, 청소년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자기인성개발활동, 환경보존활동을 비교과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태조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올해 「2019 꿈과 사람 속으로 “해외청소년자원봉사다”」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전국 유일하게 다문화청소년 대상으로 부모의 나라인 베트남으로 7월 10일~19일(9박 10일)간 해외 봉사활동을 떠나 부모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5월에 선발되어 매주 정기적인 오프라인, 인라인 모임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넷째는 청소년지도자의 다문화청소년 인식개선 교육의 강화가 되어야 한다.

다문화청소년들도 대한민국 청소년의 구성원임을 확인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과 사회적 통합성을 형성하고 다문화 교육은 소수자에 대하여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과 사회적 주체화와 더불어 지도자 또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줄 아는 ‘관용의 힘’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Ⅲ.결론

지금까지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한국어 지원, 한국문화학습, 학습지원 등을 통해 한국학교와 한국사회에의 빠른 적응을 목표로 해왔다면 한 단계 뛰어넘어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도 다문화청소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제공하고 세계화 시대에 다문화청소년들은 부모로 대표되는 두문화간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집단이기 때문이기에 다문화청소년기에 역량개발을 통해 양국 간의 가교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

남성희·전종설(2013). 아동·청소년 다문화 프로그램 연구에 대한 경향분석. 한국청소년학회, 20(3), 129-159.

유진이(2016)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방안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 여성가족부

고등학교 연령대 중도입국 학생들의 교육기회 제공 방안

조영중(천안오성고등학교 교장)

세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충남다문화교육 현황과 정책을 통하여 충남교육청의 다문화 교육을 위한 노력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계신 이병례 장학관님을 비롯한 다문화 업무 담당자들과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으로 건양대학교 이경숙 교수님의 다문화 가정 자녀 발달과 교육지원방향 모색에서는 다문화 영재교육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특히, 다문화 학생들에게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설명하시면서 애착과 자아효능감을 높여 주어야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끝으로 선문대학교 글로컬다문화교육센터 남부현 교수님의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와 문제점, 교육적 과제를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자는 남교수님의 원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학생이나 교직원들의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이해나 인식은 비교적 높은데 반해 아직도 고등학교에서의 이해와 인식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특히 만18세 미만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법무부 기준으로는 1만 명이 안 되지만, 현장에서는 3명명이 넘는다고 추산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중학교를 마치고 입국하였거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 입국한 학생들의 숫자도 수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들의 경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과는 달리 그들을 받아주는 학교도 별로 없고 일단 편입학 하였더라도 언어능력부족이나 따돌림 등으로 쉽게 적응을 못하고 중도 이탈하는 사례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다문화 학생이 매년 1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춘기에 한국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적응이 어렵다. “매일 학교에서 0점을 받고 꼴등만 하는데 선생님도 관심을 안주니 학교를 다닐 맛이 안 난다는 학생이 많다” 국민일보 보도(2019.02.25, 남부현 교수 발제원고에서 재인용)

오늘날 고등학교에서의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토론자가 근무하는 천안오성고등학교에는 2018학년도에 모두 11명의 다문화 학생들이 재학 했습니다.

〈천안오성고 재학중인 다문화 학생 학년별 현황〉

학번	이름	학생 출신국	한국거주기간 (입국시기)	부모 출신국가
10414	한○철	한국	한국출생	부: 중국 모: 중국
10729	전○라	한국	한국출생	부: 한국 모: 몽골
10830	허○경	중국	2013년	부: 중국 모: 중국
11108	박○우	한국	한국출생	부: 한국 모: 러시아
11119	김○혜	한국	한국출생	부: 한국 모: 일본
20101	공○해	필리핀	17년	부: 한국 모: 필리핀
20108	김○실	중국	2년	부: 한국 모: 중국
20528	이○진	한국	17년 (한국출생)	부: 한국 모: 중국
20810	마○요	중국	2016 2학기	부: 중국 모: 중국
30302	김○빈	한국	한국출생	부: 한국 모: 필리핀(99년입국)
30505	김○우	한국	20년(1997년)	부: 한국 모: 중국(흑룡강성)

〈천안오성고 재학중인 다문화 학생 부모 출신국별 현황〉

출신국	중국	필리핀	일본	러시아	몽골	계
인원	6	2	1	1	1	11

이들 중 대부분은 비다문화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친구관계나 학교성적 등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1명의 학생들 중에서도 7명의 국내 출생 학생들의 경우는 비교적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지만, 특히, 4명의 중도입국 학생의 경우 언어가 서툴고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살펴졌습니다.

토론자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천안과 아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학교에 편입학 하지 못했거나 중도 탈락한 청소년 수십 명씩이 매일 같이 찾아와 같이 식사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학생의 지역 적응 지원방안

김진영 박사(충남연구원)

1. 다문화가정 자녀·학생의 성장에 대한 정책 초점의 이동 필요

□ 여성가족부는 ‘19년 5월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 다문화가정의 장기정착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과 청소년기 자녀 양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변화의 양상 발견

-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중 10년 이상 한국 거주자가 2009년 15.6%에서 지난해(2018년) 60.6%로 크게 증가

-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학령기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변화의 양상에 따른 정책초점의 이동 필요

- 이러한 변화경향에 따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 초점의 이용이 필수적

- 다문화가정의 초기정착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지원에 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자녀의 성장에 따라 정책 초점의 이동이 필요

- 부모세대에 대한 정책지원 역시 자녀 양육과 자녀 교육과 관련된 사업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남도 다문화가정의 자녀·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의미가 있는 워크숍이라고 생각

- 충남도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104,854명('17.11.)으로 주민등록인구대비 4.8%를 차지하여 전국 1위 수준
 - 시군별로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순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수는 15,636명으로 '17년 11월 기준 도 인구 대비 0.72%를 차지하며, 여성이 88%로 대다수를 차지.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

2. 질의사항

- 실질적 ·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정책을 지원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당사자들을 자발적으로 참여시키고, 다양성에 기반을 둔다는 등의 총론적 · 원칙적인 동의는 이루어진 듯함
 - 현장에서는 어떻게 다문화가정의 학생 · 자녀들에게 접근을 하는지 실질적인 사례에 대한 공유가 필요
 → ① 연구자 또는 교육자로서 느끼는 현장에서의 경험과 ② 다문화가정의 학부모형으로써 느끼는 점 등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학교 밖 다문화가정의 학생에 대하여 고민 필요
 - 학교 밖 다문화가정의 학생에 대한 접근이 다름 수밖에 없음
 → 학교 밖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 사업의 경우, ① 어떻게 접촉을 하고,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② 어떠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